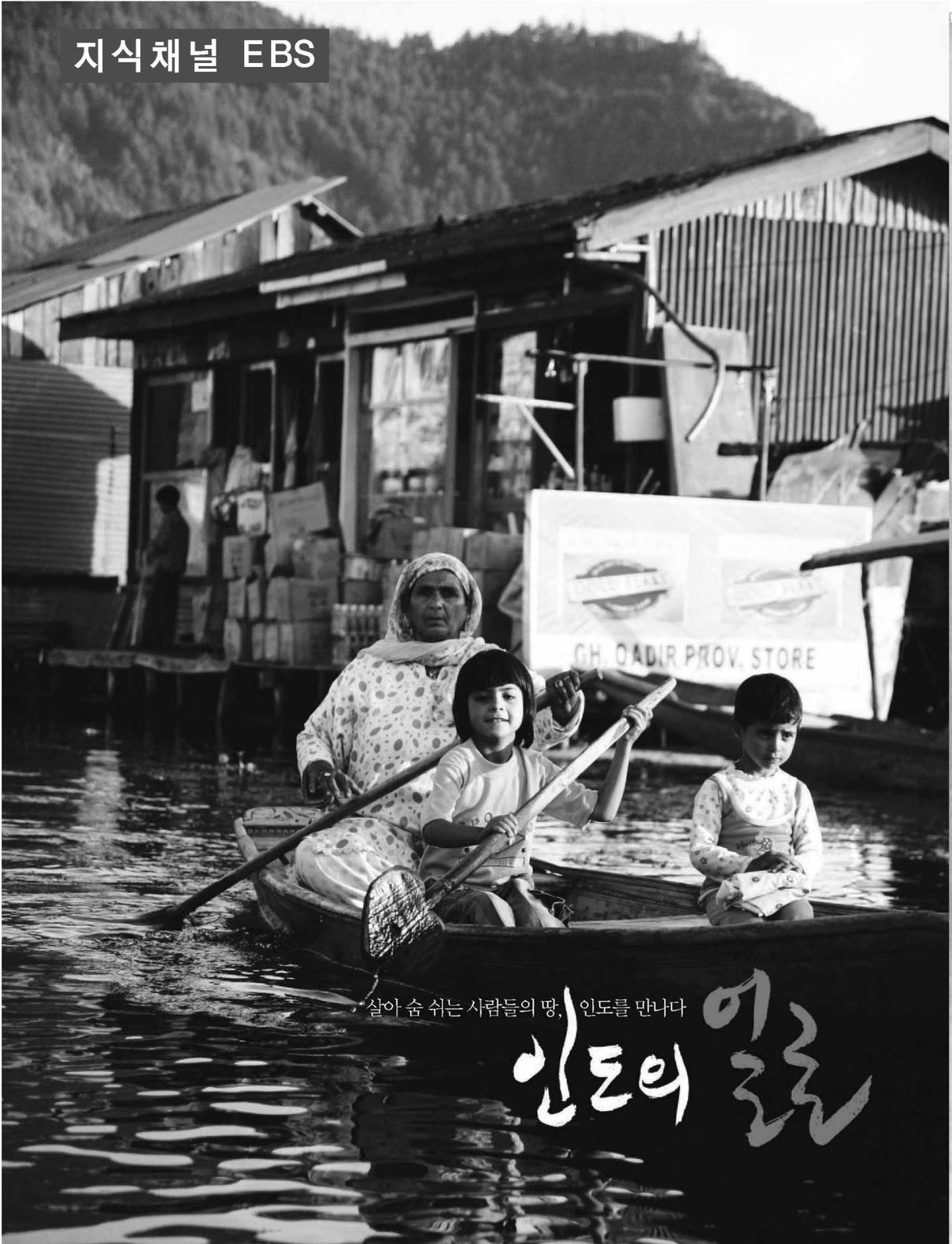


지식채널 EBS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땅, 인도를 만나다

인도의
이름으로

‘진짜 인도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서

작년 초 다큐멘터리 아이티 붐이 지, 저수영 기자는 분담 의문을 품었다. 왜 인도에 관한 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우리가 인도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신과 종교의 나라, 이회와 인문명과 유적, 독특한 인도의 음식 등만 다룰까? 당시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였고 인도의 영미 교육이나 IT 산업이 화제에 오르기도 있었다.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들로 보나 정말 ‘인도 사람’의 이야기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이야기할 통해 진실으로 인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로 갔다. 그리고 김영상 PD와 함께 《인도의 얼굴》 6부작을 만들었다. 1편부터 6편까지 권영 지역도 다르고 마을 소재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 이야기를 다뤘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인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측면으로만 이해했. 지도 보듯다는 건.

《인도의 얼굴》은 우리가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가치관과 미합리적인 사회상이 공존하는 인도를 말한다. 너무도 많은 오해와 선입견, 편견으로 가득한 인도라는 공간에서 그 근원이 되는 인도의 문명과 종교,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더불어 한국 사회의 ‘제한 분해’의 길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시장 확대라는 산업경제적 접근 또는 일부 기업적 학문을 통한 접근에서 탈피해 인도의 실상배경과 원천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원동력을 밝힌다. 먼, 이를 담아내는 작은 궁극적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다. 이미 무수히 다루졌지만 어떤 의미에선 처음 만나는 인도, 인도의 진짜 얼굴과 진짜 사람을 담았다.

제 1부 영원의 땅, 카슈미르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EBS가 카슈미르 분쟁지역으로 간다. 여기 인도의 파키스탄 간 갈등의 전운이, 인도-파키스탄의 추소판 카슈미르를 우리가 상상하던 인도와 많이 다르다. 오래된 내전과 분쟁에 시진 땅, 카슈미르. 그러나 그곳의 자연경관만큼은 인도의 안락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답다. 해발 1,500미터의 카슈미르 산간지역, 그리고 카슈미르의 수도(主都) 달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신비한 미경과 자연에 기대어 정착하게 살아온 카슈미르 사람들의 조망한 삶과 희망을 담았다.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두의 초원으로 불릴 조남마(조)에서 만난 소수 부족의 아이들은 아름다운 호수, 달라이트의 아침을 깨우는 머물썬한 상인들, 그리고 분쟁의 상처를 안은 새 생계의 위기와 싸우는 과부들의 이야기가 있다.

미국 사람들은 오랜 분쟁으로 시저가고 있었지만, 테리와 반목(테)는 계명으로 인한 황폐함보다는 오직 가족의 행복, 지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땅을 흘리는 정직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시간이 밀워진 듯, 때때로 불려받은 삶의 영적은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성한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던 ‘영원의 땅’ 카슈미르에서, “보통사람은 이미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진정한 자치정부를 이루고 있는 건니의 밝은 진실임을 확인하게 된다.

‘인도’라는 이름엔 왠지 신성함이 어려 있다. 가난하지만 신의 영혼이 서려 있는 땅 그럼에도 가장 비인간적인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건재한 나라. ‘인도’라는 나라는 이처럼 상반된 이미지가 묘하게 조화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 인도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그동안 오해와 편견이라는 현미경으로 인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EBS 다큐프라임 《인도의 얼굴》은 이제까지 이미지로 알고 있던 인도를 걷어내고 그 안의 사람들을 조명한다. 나마스레, 인도의 진짜 얼굴이 인사를 건넨다. PD 저수영, “스 캐스영, 김제병





제 2부 힌두의 눈물, 여성

부모에게 짐이 사회에선 그 짐서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인도의 딸.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허아타테움과 조호음이 높은 인도.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부담해야 하는 딸은 가정경제를 떠안는 부담스런 존재이다. "이성의 몸을 신성하기 때문에 꽃으로라도 새끼 때려서는 안 된다"고 까마귀는 가르쳤다. 하지만, 이성이 가정폭력 분쇄도 침착하다. 그러나 한편에선 대야에 진약하고 인애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서운 신장제를 보이는 인도와 아랍 움직임은 신세, 인도 여성. 2009년, 전통적인 의무와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도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삶의 모습을 담았다.

제 3부 경계를 떠도는 방랑자, 타르 사막의 라바리

낙타에 짐을 싣고 양떼를 붙여 인도 타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라바리. 7백년 전 설 속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라바리 여인들이 검은 옷을 입는 유래를 통해 사막 위에 서 핀 타르 사막의 문화를 살펴본다. 라바리족은 유목생활을 하는 사막민으로 인도 내 많은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다. 특히 라바리족은 그 지역의 독특한 생활 습관과 수공업 품으로 유명하다. 인도의 여인들은 헝헝한색의 사리를 걸치고 고결한 귀걸이는 물론 팔찌까지도 금과 은으로 꾸민다. 물론 자신은 프리태고 아담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라바리 여인들의 유난한 치장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검은 옷의 라바리 여인들은 언뜻 회교도인 듯 보이지만, 힌두교 사람이다. 검은색을 피하는 힌두교 사람들이 회교도의 색깔인 검은 옷을 입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들을 견에서 지켜본 또 다른 방랑자, 낙타 풀이꾼들과 함께 7백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라바리족의 전설 같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제 4부 살아있는 중세, 리자스탄의 대장장이

순으로 가까운 죄를 다루지만 가슴엔 뜨거운 5가지 맹새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약속은 언제쯤 지키실 것인가? 리자스탄의 대장장이를 통해 인도의 중세를 만난다. 허를 다스리는 기술은 아직도 천년의 영역이다. 때문에 어떤 역사에서도 그 기술을 아는 이들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보하드(히프다)는 자들 사람들은 다른 삶을 마다하고, 이 도시에서 지 모지고, 또 종종으로 떠돌이 대장장이 노릇을 하며 먹고살다. 그러나 그들이 유독 가고 싶어도 일부러 가지 않는 거부하는 땅이 있다. 바로 치토르가다. 그들의 약속이 지켜질 곳이다. 그들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들의 맹새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모하리 사람들 통해 초근루로 메망가로 신세, 우다이 프르 시티렌리스, 메히기 되어미런 치토르가도 신세 등 중요로웠고 근대했던 중세 인도의 역사를 만난다. 보하드, 그들은 살아있는 중세다.



제 5부 카스트, 굴레를 넘어서

3천 년의 문태이자 인도인의 뿌리, 카스트, 신분과 계급 사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진정한 카스트의 모습을 만난다. 역사책에 기록된 1개의 카스트에 얽매인 인도는 지기에 없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카스트와 그 의무를 완벽히 잊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저 자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그 곁을 위해 팔을 흔들리는 평범한 이미지와 거국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인도에 있었다. 오래된 편견을 벗기 네 진짜 인도를 만나다. 마라타시 강가에서 풍경을 촬영하며 사는 그라하만 신분의 부자, 불가촉진민 출신으로 대학의 철학 강사가 된 사람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카스트로 사람을 나누는 마라타시 근처의 한 농촌마을을 조명한다.

제 6부 소리가 만든 모자이크, 콜카타 이야기

신분과 현대의 공존, 소리와 속도의 이질감, 다양한 소리의 모습을 통해 콜카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 3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도 제2의 도시 콜카타, 영국이 식민 약탈을 위해 건설한 평원에 세운 계획도시이자 주민들의 땅으로, 인도의 우유한 역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의 유일한 도시이다. 과거의 흔적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가운데 모시에 씌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인과기, 전통 음악의 가동 변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소리'의 소리를 통해 관찰한다. ●●

PD들의 제작 노트

두 달여의 인도출장 기간 동안 그들이 삶을 깊숙이 느끼며 진정한 인도의 얼굴을 발견한 사람들, <인도의 얼굴>의 또 다른 주인공, 채수영 PD와 김영상 PD를 만나보았다.

채수영 PD Q1 <인도의 얼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인도에 대한 많은 오해와 선입견을 벗고, 근원이 되는 인도의 문명과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살펴보고 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궁극적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 노력했다. 그들도 자녀교육을 걱정하고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사람들이나.

Q2 부모에게는 집이자 사회에서는 그 존재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인도의 딸, 높은 여아 낙태율, 비극적인 과부의 삶까지 <인도의 눈물, 여성> 편은 같은 여성이라면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 여성으로서 인도에서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인 줄 알고 실어야 한다. 인도의 여자들은 남편이 술 안 마시고 담배만 안 피우면 최고다. 그런 만큼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서운 성범죄를 보이는 인도인만큼 인도여성들의 성장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인도의 얼굴>을 보면 2009년 변화의 중심에서 있는 인도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Q3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지난해 11월 뭍카이 테러가 났을 때 지역은 달랐지만 인도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바람에 거리에 경찰이 많아져서 긴장했다.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고 오래 다니면서 촬영해야 했다. 제작기간 동안 길거리 식당에서 질러두면 카레만 먹었던 것도 조금은 힘들었다.

김영상 PD Q1 제작할 때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이 있다면? 인도에는 전 인구의 45%가 사용하는 힌디어를 비롯해, 비하르어, 벵골어, 아삼어 등 수많은 언어가 공존한다. 때문에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마번 다른 통역자를 섭외해야 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언어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그것은 단지 어떤 말을 하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는 것이었다. 때문에 촬영이 끝나 후 촬영했던 현지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서심히 번역하는 데만 거의 한 달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한자나 통역만 발로만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느낌과 성서를 현상에서 섭한 감성 그대로 견고히 싶어서 본격적인 편집에 앞서 특히 공을 들였다. 인도인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2 인도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정화(淨化)의 상징이기도 하다. 인도에 머문 기간 동안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촬영은 힘들었지만, 인도는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다. 힌두교 사람들,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순수함과 그들이 추구하는 구차한 무척 값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소중한 감정들을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다.



채수영 PD와 김영상 PD